

전남도, 국내 대표 마을기업 '전국 최다' 배출 성과 거뒀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 2개·'모두에 마을기업' 1개 선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우수 마을기업'에 2개소, '모두에(愛) 마을기업'에 1개소가 선정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국내 대표 마을기업 전국 최다 배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에서 지역 자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한 우수 마을기업 16개소와 모두에 마을기업 9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의 우수 마을기업 2개소는

해남 '땅끝햇살산천영농조합법인'과 영광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이다. 우수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추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낸 곳이다. 해남 땅끝햇살산천은 저장성이 약한 고구마의 문제 해결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13년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아이스 군고구마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영광 동락점빵은 생활기반시설이 대부분 소멸해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운영하고, 독거 어르신인 안부살피기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하는 등 주민과 함께 상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모두에 마을기업에는 진도 '산들바람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지난 2020년 여수 송시마을, 2021년 영광 지내들 영농조합법인

에 이어 전남도는 3년 연속 이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에 마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지 2년 이상인 기업 중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간판 마을기업'이다. 산들바람작목반은 지난 2011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역 농산물 도소매 판매를 시작해 현재 동남아 16개국으로 수출하는 등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

물 계약재배로 지역 농업인의 수익 창출에 힘을 보태는 건설한 기업이 다. 이번 선정된 전남의 마을기업 3곳은 행안부 장관 명의의 우수·모두에 마을기업 현판과 인증서를 받게 된다. 또한 홍보·마케팅, 판로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로 우수마을기업에 최대 7천만 원, 모두에 마을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이 올해 대한민국 대표 마을

기업을 전국 최다 배출한 데는 도가 우수·모두에 마을기업 공모 준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성장 기반을 갖춘 적격기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 것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이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경제과장은 "간판 마을기업이 계속 발굴되도록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관광재단·광주신세계 광주관광 활성화 홍보 '맞손'

광주시는 광주관광재단, 광주신세계와 광주관광 활성화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3개 기관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광주신세계 1층에서 '광주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광주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이번 홍보관은 ▲스마트한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브이아르(VR) 관광 체험존 ▲관광콘텐츠 공모전 수상작과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영상으로 채운 관광상영존 ▲광주의 주요 관광지를 사진으로 전시한 관광정보존 ▲인생네컷 즉석사진 존 ▲광주문화관광 캐릭터 '오매나'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14일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광주관광재단 관계자 등은 '광주 관광 홍보관'을 찾아 내방객에게 숨은 광주관광 명소를 알리는데 적극 동참했다. 관광정보존은 '천천히, 감명깊게 광주여행', '빠르고, 생동하는 광주여행' 2개의 주제로 나눠 각 10곳씩 총 20곳의 관광지를 꼽아 '광주로 여행가는 달'을 홍보하고 있다.

테마별로는 야경 스폿,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풍류 나들이, 근대역사골목, 민주화 역사공간, 시티투어 버스 코스, 광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정보 등을 제공해 문화·역사·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오매나' 포토존은 어린이를 포함해 홍보관을 찾는 모든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광주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오매나'와 기념촬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관광재단은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홍보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광주관광을 안내하고 홍보책자 등을 배포하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오매나 캐릭터 체험꾸러미와 기념품 증정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국민의 힘 광주광역시 서구(을) 당협 제48차 운영위원회 주간회의 및 핵심당원 연석회의 가져
 지난 10일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당협 사무실에서 제48차 운영위원회 주간회의 및 핵심당원 연석회의가 있었다. 회의 안건으로 ▲대선 승리 및 지방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 자축연 및 해단식 ▲향후 조직 구성 및 활동 방안 ▲당원 배가 운동 방안 등 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많은 열정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회원으로 등원한 김용남 시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을) 당협 제공

**명성은 특별함에서
 나옵니다!**

차별화된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